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47호

2021. 07. 05.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2021년 임·단협 3차 교섭 보고 임금 인상(안)을 모두 거절한 대학

2021년 7월 2일(금) 14시, 서울캠퍼스 신본관 제2회의실에서 2021년 임·단협 3차 교섭이 열렸다. 노동조합이 집행부 워크숍과 대의원회의를 거치고 총회의 의결로 확정된 올해 임금 인상안은 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더욱이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정을 십분 고려하여 임·단협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학은 ①급여 1.5% 인상, ②직무지원수당 3만원 일괄 인상, ③명절수당 설/추석 각 20만원 신설, ④시간외근무수당 1만원 인상의 요구에 대해 그 어떤 조정(안)도 없이 일괄 ‘수용불가’로 답하였다.

바로 며칠 전 발표한 제15대 총장 재임 2차년도 경영성과 보고서를 보고 뿌듯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구성원이 바라는 최소한의 임금인상 요구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대학 경영을 잘못된 것이고, 여력이 있음에도 귀를 막고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것은 61페이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교직원의 노력과 결실들을 모두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학은 교육부의 수도권대학 신입학 정원조정 계획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악화될 것이기에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교섭 내내 고수하고 있다. 올해나 내년 당장의 일도 아니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신입학 정원조정 계획을 벌써부터 핑계 삼고 있다. 2023년의 불확실한 위기를 핑계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2022년, 2023년 앞으로 계속 임금 인상은 없다는 뜻이다. 임금은 비용이 아니다. 대학발전을 위해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듯이 임금은 인적자원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수용불가’라는 대학의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나 뜻하지 않게 위기에 직면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이겨낸 구성원을 위해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한다. 우리 한양은 지난 시절 숱한 위기 상황에서 직원, 교원, 학생, 동문 등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지금의 위상을 일궈냈다. 설사 2023년에 신입학 정원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앓는 소리를 하는 대학에 묻는다. 대학은 우리의 저력을 믿지 않는가? 믿는다면 ‘수용불가’를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임금인상(안)을 마련하여 4차 교섭 테이블에 올려라. ‘진정성’은 ‘말’만이 아닌 ‘결과’를 수반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우리도 일한만큼의 진정성 있는 보답을 받길 원한다. 대학은 화답하라. 진정성 있게.